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모 두 말 씀

2018. 7. 31. (화) 14:00~15:00

보험개발원 13F 세미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회」는,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보험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의 혁신 현장을 직접 느껴보고,

앞으로 정부, 보험업계가 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시연 준비에 힘써주신
보험개발원, 교보생명, KB손해보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을 함께 해 주실
“피겨 여왕” 김연아씨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보험산업과 인슈테크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전에 없던 급격한 기술혁신을 경험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와 지형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Insurance)과 신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인슈테크(InsureTech)가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금융 내에서도 혁신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해외에서는 AI가 보험금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고,
원스톱 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 * (美) Lemonade社 : AI 보험금 산정, 전체 청구의 25%를 3초내에 지급
- (中) 중안보험社 : 제휴병원의 경우, 모바일로 기본정보(보험계약정보, 사고지역, 사고일 등) 입력시 자동으로 청구

인슈테크 혁신의 성공 사례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연회에서 선보일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는
우리 인슈테크의 시금석이 될 사례라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여
약 3,300만여명이 가입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입니다.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민 400명(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7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29.4%
(‘18.5월, 시민단체 ‘소비자 함께’)

한편, 보험회사에서도
연간 2,400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手記)로 심사할 수 밖에 없어

* 보험개발원 추산

일상적인 보험금 지급에 여러 날이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분야에서의
인슈테크 활용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위험을 보장하는
사적안전망 역할을 더욱 든든히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인슈테크 혁신이
보험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우수한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Co-Work) 등
우리 보험업계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보험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Ⅲ. 인슈테크 활성화 지원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성공적인 인슈테크 사례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 구축을 위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절차가 완료 되기 전이라도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를 활용해
금융과 신기술의 결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보험업계의 경쟁과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인슈테크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와 보험상품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원스톱 법령해석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아직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의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위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현장의 의견을 기탄 없이 개진해 주시면,
정부가 혁신의 걸림돌을 치워나가는데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IV.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끈적한 지식을 얻는
“축적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 서울대 이정동 교수 저서, 「축적의 길」

특히나 인슈테크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연계 산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행착오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회」가
관계 당국과 보험업계, 핀테크 업체, 연관 업체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進一步를 위한 “축적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